

충북 음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방역 강화

- 2025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 지정·운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31일(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4만 4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2월 30일(월) 충북 음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31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0월 29일(화) 첫 발생 이후 19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8번째 발생이다.

* 산란계(8건), 육용 오리(7건), 토종닭(2건), 육용종계(1건), 산란종계(1건)

국내 가금농장(19건)과 야생조류(24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30(월) 충북 음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북 음성군 및 인접 7개 시군(충주·괴산·증평·진천·여주·이천·안성) 닭 농장·축산시설·축산 차량 등에 대해 12월 30일(월) 22시부터 12월 31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5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충북 음성 발생농장과 동일한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장 8호(음성 5, 진천 2, 제천 1)에 대해 1월 3일까지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지역 가금 농장에는 전담 소독 차량을 배치하여 소독을 강화한다.

둘째, 전국 20개 산란계 농업회사법인 소유 축산시설(87개 농장 및 29개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2025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1,188호)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적으로 소독을 시행한다.

넷째, 최근 산란계에서 발생한 시군과 과거 발생 이력이 있었던 11개* 시군에 대해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지도한다.

* 경기(안성·여주·화성·이천·평택·김포·포천), 충북(음성), 충남(아산·천안), 세종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충청북도는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 법인 8개 농장 및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대 내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철새도래지 인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으로 지정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에 대해 1일 2회 집중소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와 축산농가는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연말연시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농가들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누적 99만 9천 마리)는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8,120만 마리)의 1.23%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분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정승교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병용 (044-201-2555)
담당 부서 (수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정훈기 (044-201-2344)
담당 부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 농축수산해양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선무 (044-205-6190)
		담당자	서기관	김정권 (044-205-6191)
담당 부서 (야생조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책임자	팀 장	정윤환 (044-201-7491)
		담당자	사무관	황지영 (044-201-7503)

